

# 염불로 생각 이전의 자리 확인

‘하고 싶은 수행’ 전문가에게 묻다 ⑦

## - 염불선 수행

올해 불교에 갓 입문한 김남수씨(56·청주 율령동, 선(禪) 수행은 하고 싶은데, 시작하기도 전에 겁부터 먹었다. 주야장창 가부좌를 틀고 앉은 불자들의 모습에서 아연실색했기 때문. 선방에 흐르는 침묵은 김씨의 답답함을 키웠고, 도대체 염두가 나지 않았다. 그러다 도반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간화선은 어렵지? 그럼, 염불선 수행을 해봐!” 순간 귀가 솔깃했다. ‘염불선? 이게 뭐야?’

9월 10일, 서울 대전 등지에서 온 5명의 불자들이 염불선 수행을 20년 넘게 지도하는 충북 청원 해은사 주지 덕산 스님을 만나 궁금증을 쏟아냈다.

### ■탁한 염 녹이는 맑은 에너지 파동

해은사에서 <금강경 오가해> 강의를 듣고 있는 김광문(56·청주 병명동)씨. 2년 전 아내와 사별한 김씨는 아내의 극락왕생을 바라는 소박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명호를 외었다. 하지만 김씨는 염불을 하면 할수록 무언가 빠진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간절한 마음으로 아내가 서방극락정토에 환생하기를 바랐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미타 부처님에게 무자정 매달리는 허약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다 ‘생각 이전의 마음자리를 여의지 말고 염불하라’는 염불선 수행을 알게 되면서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러면서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염불과 염불선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간 내가 해온 염불 수행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였어요.”

덕산 스님의 조언이 이어졌다. “잘못되지 않았어요. 먼저 염불과 염불선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려야겠군요. 염불은 아미타불이나 석가모니불 등의 형상에 마음을 두는 수행법이에요. 선은 생각 이전의 그 자리, 즉 우주의 진여 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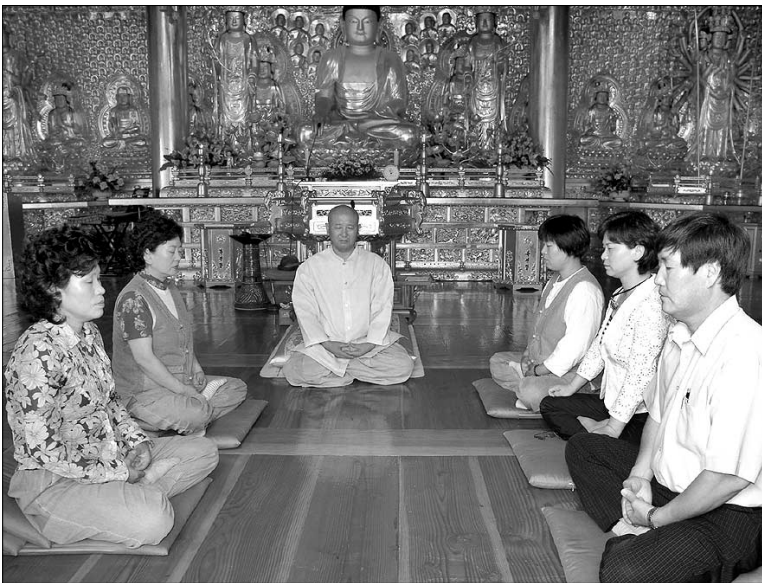
체를 확인하는 수행이죠. 달리 말하면 선과 염불의 차이점은 ‘본말(本末)’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어요. 본래 주인공 자리인 진여(眞如), 생각 이전의 자리를 마음에 두고 염불할 때 선이요, 상(相)에 두고 하면 염불이 돼요.”

김씨가 다시 염불선이 재가자들에게 좋은 점은 무엇인가를 물었다. “염불선은 재가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요. 염불 그 자체는 맑은 에너지의 파동이기에 우리 몸에 맑은 에너지를 발현시키죠. 이 에너지는 과거로부터 억눌려온 탁한 염을 녹입니다. 그 맑은 파동이 바로 자비광명이요. 염불선 수행을 하는 순간순간에 자비광명이 발현되죠. 그 기운이 일상으로 연결되면, 가정과 사회가 맑고 밝게 되는 거지요.”

### ■‘삼법인’ 이해가 필수

지난 98년부터 새벽마다 염불선 수행을 해온 이수동(44·서울 성북구 석관2동)씨가 질문을 이어 받았다. “염불선 수행을 하니 인간관계는 물론 세상사 모든 것이 연기적으로 얽혀있음을 깨닫게 됐죠. 염불선 수행에는 임하는 자세는 어떠한가요?”

“연기법을 비롯해 삼법인(三法印)의 이해가 필수이예요. 특히 제법무아(諸法無我)의 도리를 바로 알아야 해요. 이 가



덕산 스님의 지도하에 재가불자들이 염불선 실천을 하고 있다.

르침은 ‘내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나’라고 지칭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뜻이예요. 바로 무아의 가르침이 공(空), 불성(佛性), 진여(眞如), 법성(法性), 주인공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마음’이라 하는 거죠. 염불선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무아가 곧 우주의 근본 진여당체 자리임을 깨닫고 이 자리와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94년부터 염불선 수행을 해왔다는 이형순(47·청원군 남일면 고운리)씨가 “진여당체란 무엇인가?” 하고 물었다.

“진여는 공 무아 불성 등으로 다양하게 말할 수 있어요. 진여를 문자와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 중생 근기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을 쓰는 거죠. 진여 당체는 우리들의 본래 면목이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몸의 기관을 통해 밖의 경계들과 접촉하죠. 그러면서 분별심을 일으키고 번뇌를 만들어내요. 여기서 진여 당체는 바깥 경계와 접촉이 일으키기 이전의 자리이예요.”

### ■빠른 속도로 외어야 번뇌 끈 끊어

염불선 수행을 1년째 해온 신순자(54

·대전시 중구 대사동)씨가 그간 염불선 수행에서 겪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사실 염불선 수행은 쉽지가 않아요. 진여당체에 마음을 두고 정진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초심자들은 조급한 마음으로 한두 번 하다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등의 명호를 그대로 길게 외면, 틈이 생기죠. 깊은 삼매체현을 못하게 되는 거죠. ‘내가 본래부처’를 의심하지 말고, 계속 정진하는 것이 중요해요.”

김광문씨가 일상 속에서의 구체적인 염불선 수행법에 대해 물었다.

“예를 들어 잠 잘 때는 아주 편안한 자세에서 눈을 지그시 감으세요. 생각 이전의 자리가 본래 주인공 자리임을 알고, 나 마음에 본래 갖추고 있는 불보살의 명호를 처음에는 10분씩 외세요. 다만 수월한 방법으로 알려드리면, 우선 명호를 줄이세요. 가령 관세음보살은 ‘관음’, 아미타불은 ‘아미타’로 외세요. 또 관세음보살을 할 때는 ‘관음! 관음!’이라고 소리 내지 말고, 마음에 아주 빠른 속도로 부르세요.”

글·사진/청원=김철우 기자

### ■덕산 스님은

덕산 스님(사진)은 청화 스님(2003년 입적)의 염불선 수행 전통을 잇고 있는 차세대 염불선 수행 지도자다. 스님은 87년 청화 스님으로부터 염불선 수행법을 배운 후, 99년 8월부터 3천원 ‘관세음보살 고성(高聲)염불’ 운영정진을 희망하기도 했다. 82년 월탄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덕산 스님은 청원 해은사를 중수, 염불선 수행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043)297-5115, www.hyeunsa.or.kr



##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 <36> 노파가 암자를 태우다

고려의 진각해심(1178-1234) 국사가 편집한 <선문염송>은 1400개가 넘는 공안을 수록해놓은 선종사 최고최대의 공안집이다. 중국선사들에 의해 편집된 <벽암록> <종용록> <무문관> <송고백적> 등 많은 종류의 공안집들이 있지만 하나같이 100칙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 그 양에 있어서도 타의추종을 불허한다.

흔히 1700공안이라고 하는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진각 선사 열반이후 등장한 공안을 빼고는 모든 것을 망라해놓은 ‘종합 백과사전 공안집’이라고 하겠다.

<선문염송>은 한국 선가의 저력인 동시에 자부심이다. 그리고 모든 삼립살이의 결집이기도 하다. 그런 측면에서 신라의 도의 국

사에게 백장 선사가 말했다는 ‘마조의 불법이 모두 해동으로 가 버렸다’는 표현처럼 조사선의 정통을 이어받고 있다는 해동 조계종의 긍지는 지금도 변함없다. 그런데 그 염송집

뜻하지 않는 돌출행동을 만났지만 남자는 평소의 답답한 이조로 일했다.

“마르나무(枯木)가 찬 바위에 기대니, 한 겨울에도 따스한 기운이 없도다.” 물론 마르나무는 그 뜻을 가리키고 찬 바위는 자신을 가리킨다. 이러한 경지를 일러서 선가에 서는 전통적으로 고목선(枯木禪)이란 부정적 표현을 쓴다. 정(情)·마음이 끊어지면 공부 역시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그 맑은 액면 그대로 어머니에게 전했다. 노파는 공부경지를 고목선으로 판단했음이 분명하다. 이에 그만 화가 나서 “내가 이십년동안 속인을 시봉했구!” 통탄하면서 일어나 암자로 달려가서 그 남자를 쫓아내고 토굴 역시 불질러 버렸다.

어쨌픈 공부경계 조금 나타났다고 해서 20년 묵은 남자를 들었다 놓았다 해봐야 그것 역시 허잖은 중생경계에 불과하다. 물론 고지식하게 원론만을 죽여라 고수한 그 남자에게 큰



## 20년동안 토굴에서 남자 시봉한 노파 공부경지 시험하곤 실망감에 불 질러

의 마지막은 ‘고목(枯木)’이라는 화두로 대미를 장식하고 있다. 맨 끝이라는 위치상의 의미 부여와 이야기 자체가 지나는 흥미진진함으로 인해 예로부터 많은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보통 ‘파자소암(婆子燒庵) 노파가 암자를 태우다’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옛날에 한 노파가 토굴에서 공부하는 남자를 20년동안 시봉하였다. 열심히 밭도 짓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오로지 그 남자가 공부를 잘하여 자신의 눈을 열어주고 제도해주길 바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봉공덕으로 인한 탓인지 노파에게 먼저 잔잔한 공부의 경계가 나타났었다. 그 남자를 시험해보고 싶은 장애가 일어났던 것이다. 그날은 밥을 팔 편으로 보내면서 일했다. “스님을 꼭 껴안으면서 ‘이 때는 어떠한가?’ 하고 물어보고는 그 대답을 나에게 전하도다.”

맑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공양을 마치고 슬며시 그 남자에게 안겼다. 그리고는 교태를 떨면서 어머니가 시킨 대로 물었다. “스님!~! 지금 느낌이 어떠한지요?”

힘들은 있다. 짧은 팔에게는 그 답변이 맞다. 하지만 팔에게 한 법문을 그 어머니는 자기에게 한 법문으로 이해했던 것이 잘못이다. 만약 그 어머니가 와서 안겼더라면 천동합결(1118-1186) 선사처럼 당연히 그 남자도 이렇게 답했었을 것이다.

“한 줌의 버들가지를 거둘 수 없어서 바람과 함께 육난간에 달아두노라.” 염송 제1칙은 부처님 탄생에 관한 것이니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또 배설자체가 조사의 법맥 손으로 돼있으니 시대별로 정리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주인공을 알 수 없고 시대도 애매한 공안들은 어찌할 것인가? 당연히 맨 뒤로 돌려지기에 마련이다.

이 부분에 이르면 편집자의 안목을 백배 센트 반영시킬 수 있는 윤희성을 지니게 된다. 처음 못지않게 마지막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파자소암’이라는 마지막 공안을 통하여 우리는 또 다른 공안을 발견하게 된다. 진각 선사께서 ‘파자소암’을 <선문염송집> 맨 끝에 두신 까닭은?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 아빠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 밤은길 아빠타 센터

아빠타 마스터 김희곤  
전화주시는 본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명정동 154-1  
전화 010-6230-2113 ● 02)396-2736  
http://www.avat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공주대학교  
식품과학연구소

NSF-HACCP 인증  
9001(2000), HACCP인증

39원 생산물  
생산물품질보증  
상장화대생분류주식회사

# 심

# 봤다

# !

# 제 2 의 산삼

## 심마니 토종 오가피

현풍 심마니 토종 오가피는 옛 고전서에서 전해 내려오는 국내산 오가피에 심마니가 채취한 천종산삼의 배양근을 함유하여 우리 체질에 맞게 심혈을 기울여 개발되었습니다. 첨단 생산 시설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로 좋은 제품을 만드는 현풍 심마니 토종 오가피에는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시작하세요!

책자와 비디오테이프를 심마니 토종오가피와 함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주)현풍F&B 02)447-9114

HYUN PUNG F&B COLTD

## 세상을 맑게 하는 방송 (주)불교TV가

### 부산·영남지역에서 활동하실 총괄책임자를 모집합니다.

1. 담당업무: 교계 뉴스취재 및 광고영업, 고객관리
2. 고용형태: 연봉계약직(성급급제 협의 가능)
3. 직 급: 국장 또는 부국장
4. 모집인원: 0명
5. 모집마감: 2005. 9. 30(금)
6. 자격요건: 부산 거주 가능한 분이어야 합니다.
  - 1) 부산지역 불교계 단체(불교학살회, 청년회, 대불련 등) 활동 경력자
  - 2) 뉴스취재 및 광고영업 경력자 우대
7. 제출서류: 이력서(명함판 사진첨부), 자기소개서, 교계활동증명서(사찰주지스님 확인서), 영업활동 계획서
8. 접수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 (문의: 02-3270-3354 불교TV 총무부)
  - 1) 우 편: (151-820) 서울시 관악구 봉천8동 945-2 불교TV 총무부
  - 2) 이메일: kimdj1@empal.com
9. 전형방법: 1차 - 서류전형, 2차 - 임원면접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